

# 古典籍의 形態記述에 관한 研究

-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의 형식을 중심으로 -

玄 英 娥\*

## 〈목 차〉

- |                    |              |
|--------------------|--------------|
| I. 序 言             | B. 기타 形態의 細目 |
| II. 形態記述의 定義 및 必要性 | C. 크 기       |
| III. 古典籍의 形態의 特殊性  | D. 딸린 자료     |
| IV. 形態記述의 種類 및 順序  | V. 結 言       |
| A. 특수형태 자료의 종류와 수량 | 參考文獻         |
|                    | ABSTRACT     |

## I. 序 言

도서관 資料라 하면 그 種類와 形態가 내적·외적으로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形態記述은 개개 資料의 形態의 特徵에 따라 다양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ACR2를 볼 때 일반도서와 함께 비도서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도서자료들의 여러특징에 따른 形態記述의 다양함이 이를 입증해 준다.

더군다나 도서관의 전산화시스템으로 자동화목록법(MARC)이 사용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 古典籍 資料 目錄의 자동화를 위해서도 이의 形態記述 문제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古典籍 資料의 目錄도 ISBD에 근거하여 이를 전산 처리 함에 있어서 一般 圖書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특수한 형태로서의 古典籍에 대한

\* 명지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

形態記述은 단행본에 準據하면서도 개개 형태적 특징에 따라 그 세부적인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東洋의 古典籍도 形態가 특수한 만큼 特殊 資料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하겠으며, 더우기 이들은 刊印年이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版種도 다양하여 異板의 식별 및 그의 刊印 年代 推定은 세부적인 특수한 형태를 구체화하므로써만 입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래 古典籍에 대한 形態記述이 통일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아직 AACR2의 형식이 채택되지 않았으며, 도서관 자료의 자동화 목록에 있어서 진작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자료 전산화를 위해 한국 자동화목록법(KORMARC)이 연구 진행되어 활용되었으나 古典籍의 전산화를 위해서는 再考될 여지가 많은 형편이다.

본 연구는 古典籍의 형태기술에 있어 異版과 刊印年 推定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諸 特徵들을 ISBD의 특수형태 자료의 記述 形式에 준하여, 가장 최소한의 필수적인 형태기술의 내용과 순서로 그 형식들을 제시함으로써 古典籍의 자동화 목록에 일 도움을 주고져 한다.

## II. 形態記述의 定義 및 必要性

문헌 및 모든 자료의 形態記述은 이용자가 자료의 특성을 식별하고 그 외형적인 성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形態의 諸 特徵을 빠짐없이 표시해 주어 製本 또는 再製本할 때 原型이 유지될 수 있도록 保證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sup>1)</sup>

이러한 形態記述의 內容은 요즈음 나오는 일반 도서의 경우 面·張數 및 冊·卷數 즉 물리적 수량과 삽도, 크기 그리고 딸린자료등 4 범위로 되어있다.<sup>2)</sup>

1) Heartsill Yourt Edit,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LA, 1983) p.169.

2) Marguret F. Maxwell, 「Handbook for AACR2 : Explaining and Illustrating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second Edition」 (Chicago : ALA, 1980)p.77.

그러나 東洋의 古典籍에서는 그 形態가 특징적이어서 그렇게 단순치 않기 때문에 일반도서와 같은 기본적인 형태기술로 만으로는 古典籍의 個個의 識別上에 문제가 惹起된다.

古典籍의 특징적 形態記述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기타 형태적으로 특징있는 특수 資料에 대한 形態記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 형태 資料라 함은 一般圖書 이외의 즉 비도서와 같은 형태적으로 특수한 것으로써 예를 들면 地圖(maps) 樂譜(music) 音樂記錄資料(sound recordings) 슬라이드(slide) 마이크로 폼 등을 들겠는데 이들의 형태기술의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地圖(map) 및 地球儀(globe)<sup>3)</sup>

3 map : col. ; 71×82 cm. folded to 21×12 cm.

on side 2 of 1 map : col. ; 92×65 cm. folded to 23×10 cm.

1 globe : col. ; 12 cm. in diam.

地球儀는 크기에 있어 직경 표시를 하고 cm로 기재하고 있다.

2) 樂譜(music)<sup>4)</sup>

1 vocal score (20 p.) ; 26 cm

104p. of music : ill., ports. ; 26 cm

순수한 악보나 또는 설명이 들어간 악보를 구분하며 記述하고 있다.

3) 音響記錄資料(sound recordings)<sup>5)</sup>

1 sound disc (ca. 22 min.) : 33  $\frac{1}{3}$  rpm, stereo. ; 12 in.

on side 1 of 1 sound disc (31 min.) : 33  $\frac{1}{3}$  rpm, stereo. ; 12 in.

1 sound cassette (24 min.) : 1  $\frac{7}{8}$  ips, 2 track, mono.

3) Michael Gorman 「The Concise AACR2」 (Chicago:ALA, 1981), p.33.

4) 前掲書, p.144-145.

5) 上掲書, p.151, 159.

이들 자료의 종류는 “sound cartridge”, “sound cassette”, “sound disc” 혹은 “sound tape reel”이라는 형태의 종류 표시와 함께 수량을 기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음반(disc)의 경우는 소요되는 시간, 회전속도와 함께 單音(mon-o), 複音(stereo), quad(4채널 레코오드의 경우) 등으로 그 특징을 표시하고 있다.

4) 映畫와 影像記錄資料(Motion pictures and video recordings)<sup>6)</sup>

1 film cartridge (4 min.) : si., col. ; super 8mm.+1 study guide.

1 film reel (ca. 6 min.) : sd., col. ; 16 mm.

1 videocassette (Sony U-Matic, UC-60) (ca. 40 min.) : sd., b&w ; 3/4 in.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有聲인지 無聲인지, 黑白 또는 採色여부 및 film reel의 형태. Videocassett機種의 형태 및 크기를 각기 mm 나 inch로 표시하고 있다.

5) 차드, 필름스립, 필름차드, 포스트 카아드 등<sup>7)</sup>

1 filmstrip (14 fr.) : col. ; 35mm. + 1 student guide.

1 flipchart (6 sheets) : b&w ; 22×36 cm.

4 postcards : b&w ; 11×15 cm.

12 slides : col., sd. ; 2×2 in + manual.

6) 입체자료(three-dimentional objects)<sup>8)</sup>

6tablets : plastic, brown ; in box, 30×32×6 cm. + 1 teachers guide (8 p.)

1 game (48 cards) : col. ; 10×7×2 cm.

1 sculpture : mable ; 110 cm.

6) 上揭書, p.171.

7) 上揭書, p.190, 192.

8) 上揭書, p.205.

위에의 보듯이 자료의 材質과 자료가 담겨진 용기의 크기까지 자세히 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 축소자료(microforms)<sup>9)</sup>

4 microfiche : negative ; 11×15 cm.

4 microopaque ; 8×13 cm.

이상과 같이 특수 자료의 形態記述을 보면 個個 資料의 形態的 특징들을 식별하는데 필수적인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記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東洋의 古典籍 자료가 圖書의 形態이긴 하지만 裝訂뿐만 아니라 印刷 형식등에 있어 그 형태적 특징이 두드러지고, 또한 異版이나 刊印年의 識別로서도 일반도서와 같은 단순한 형태 기술로만으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다. 그러므로 이 역시 위에서본 특수자료와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최소한 순서있게 記述 형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 Ⅲ. 古典籍의 形態的 特殊性

앞서 언급한 대로 자료의 形態 記述은 각 資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바 古典籍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특수한지 또 특수 사항이 꼭 形態記述에 記入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冊의 裝訂의 種類부터 특이하다. 즉 裝訂의 種類에는 卷子本, 帖裝·旋風葉, 蝴蝶裝, 包背裝, 線裝本등이 있는 바, 卷子本은 竹簡木牘과 병행하여 先秦時代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책의 최초의 형태로서 두루말이를 일컫는다<sup>10)</sup> 帖裝 또는 旋風葉<sup>11)</sup>은 卷子本の 중간이나 끝을 읽

9) Michael Gormen, 「The Concise AACR2」 (Chicago : ALA, 1981), p.35

10) 이는 종이 한 끝에 등근 軸을 달고 다른 끝에는 牘竹과 卷緒를 달아 보존할 때에는 軸에 감은 다음 卷緒로 매두는 형식의 裝訂을 말한다.

을 때 감아내려가야 하는 불편함에서 改裝된 것으로 唐代에 사용되었는 바, 내용면을 접되 앞뒤 面에 표지를 붙여 冊中 어느 곳을 참고 할 때 도 쉽게 찾을 수 있는 裝訂이다. 蝴蝶裝은 宋代에 비롯한 것으로 書寫 또는 인쇄된 경우 文字가 안으로 오도록 접어 한장씩 펼치면 마치 나비가 나는 모양과 같다하여 붙여진 명칭이다.<sup>12)</sup> 包背裝은 元代에 등장하여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은 明代 刊本 및 寫本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는 蝴蝶裝이 파손되어 흩어지기 쉽게 되자 인쇄된 면이 밖으로 오도록 접어 紙捻이나 끈으로 묶은 裝訂의 형태이다.<sup>13)</sup> 線裝本은 古典籍의 裝訂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장정이다.<sup>14)</sup> 이러한 裝訂들은 형태별로 특징이 있지만 이외에도 시대별로 나타났기 때문에 刊·寫本の 時代 考證에 한 몫을 한다.

둘째 古典籍은 刊印年度가 정확하게 표시된 것이 드물며, 版種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는 刊行年이 있다 할지라도 版種의 문제가 야기된다. 즉 重刊 補刻 覆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原刻 또는 比較的 初期의 刊行 記錄만을 그대로 轉載하고 있을 뿐 잇달아 重刊된 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刊印年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三國史記의 경우 本版本으로

50卷10冊 31×21.2 cm 四周單邊 半匡 18.6×17.2 cm

有界 9行18字 版心:大黑口 上下 黑魚尾

로 인쇄되었으며 이외에도 活字本으로,

50卷10冊 31×20.6cm 四周單邊 半匡

- 11) 旋風葉은 帖裝에 있어서 表紙가 上下面이 분리되어 있어 잘못 다루면 종이를 손상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뒤 上下表紙를 한장으로 고안하여 折疊하여 종이를 양면으로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 12) 이때 表紙書背 內面을 풀로 붙인 裝訂이다.
- 13) 이때 表紙는 책 上下面과 書背를 洋裝本과 같이 덮어 씌웠다.
- 14) 인쇄된 면이 밖으로 오도록 正摺해서 重裝하고 두장의 表紙를 앞 뒷면에 붙여 書腦부분을 끝으로 꿰맨 綴裝을 말한다.

22.8×15.4 cm 10行18字 注雙行 上下花紋魚尾

刊行되었는 바 모두 刊印年은 記錄되지 않았고<sup>15)</sup> 이외에도 많은 고전적에서 後刻인데도 刊記가 정확지 않고, 重刊, 補刊, 覆刻이 時代가 거듭됨에 따라 이루어 졌는데도 그때마다 刊印年까지 그대로 印出했기 때문에 이의 형태적 識別을 반드시 해야만 확실한 刊印年을 推定하게 된다.

이외에 東洋의 古典籍에서만 볼 수 있는 特有한 版式 중의 하나인 黑口와 魚尾를 살펴보자.

黑口는 版心의 上下象鼻 中心에 있는 黑線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古典籍에 있어서 高麗末期와 朝鮮 初期의 刊本에서부터 上下의 黑魚尾와 더불어 한雙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中宗朝 무렵부터는 上下의 三葉花紋魚尾와 더불어 한 雙이 되어 나타나고 있음이 特徵이다. 그러나 壬辰亂 이후는 覆刻 또는 模印本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黑口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黑口는 同一著作의 異版本을 刊行된 時代順으로 대충 식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sup>16)</sup>

또 이외에도 鑄字本의 覆刻本을 鑑別하는데 도움이 되는 바, 이를테면 木版本이나 그의 覆刻本에 있어서는 黑口와 匡郭이 연결되어 있으나, 鑄字本, 木活字本 등에서는 黑口와 匡郭에 틈이 있어 鑄字本의 覆刻은 구별될 수 있다.<sup>17)</sup> 그러나 오로지 이 黑口로만 識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외의 여러 形態 書誌 요소들과 함께 고증해야 될 것임은 물론이다.

魚尾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黑口와 더불어 한 雙이 되어 刊本의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또한 魚尾 자체만의 변천에 의해서도 刊本의 시대적 특징을 대강알 수 있게 하는 구실을 한다.

이를테면 世宗 年間에 初鑄甲寅字로 刊行한 책에는 대체로 上下의 黑

15)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下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70) p.154.

16) 上揭書, 同面.

17) 任鍾淳, “黑口論” 「書誌學」第3號, (1970, 10), p.23-24.

魚尾가 上向되고 있다.<sup>18)</sup> 花紋魚尾는 中宗朝의 무렵부터 三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壬辰亂 前에는 예외없이 襲用되었고 壬辰亂後는 光·仁祖朝까지도 계속되었으며, 그 이후는 三葉과 混用되다가, 英祖 以後는 완전하게 二葉으로 바뀌어졌는바, 이 魚尾만으로서도 어느 정도까지 刊本の 시대적 변천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sup>19)</sup>

이외에도 匡郭은 版의 四周를 둘러싼 線으로서 그 크기를 古典籍의 異版本을 대조하는데 있어 책의 외형적인 크기보다도 더 중요시 여긴다. 그 이유는 같은 版에서 同時에 印出된 冊 중에도 종이의 크기에 따라 책의 크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匡郭의 크기만은 一定 不變하니, 匡郭의 크기가 다르면 틀림없이 異版本이 되기 때문이다.

界線은 紙張의 各行間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은 線을 말하는데 이 역시 異版本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일한 著作이라 할지라도 高麗本과 같은 古版本은 대체로 無界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古版本을 覆刻할 경우는 重刊 또는 後刻本에도 無界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事項을 綜合한 토대위에서 異版本을 식별해 내어야 하지만 어쨌든 界線도 異版 구별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古典籍은 인쇄방식이 現代의 일반 도서와 달랐기 때문에 한 저작의 여러 異版에 대한 식별과 함께 刊印年 推定의 올바른 입증을 위하여 고전적 특유의 물리적 제 특징이 세밀히 기술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 Ⅲ. 形態記述의 종류 및 순서

古典籍의 特殊性으로 일반 도서와 같은 形態記述로서는 資料를 확실하게 識別할 수 없음을 감지하겠다.

18) 千惠鳳, 前掲書. .p.155.

19) 上掲書, 同面.



요즈음 간행되는 일반도서의 ISBD에 의한 形態記述 요소는 1) 면·책수, 2) 삽도류 3) 크기 4) 딸린자료 등이다. 이와 같은 기본 형식에 준하여 특수 자료에서는 그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형태상의 특징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특수자료의 記述內容도 일반 도서에 준거하여 1) 특정자료의 종류와 자료의 수량 2) 기타 형태적 세목 3) 크기 4) 딸린자료로 하여야 될것이다. 따라서 古典籍도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異版의 식별과 刊印年의 추정을 위하여 특수한 형태를 ISBD 형식에 의하여 필수적인 최소한의 形態記述의 종류를 순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A. 특수형태 자료의 종류와 수량

##### 1. 특수형태 자료의 종류

일반도서의 形態記述의 첫 부분은 出版物의 수량 표시로서 단행본일때는 면수(page)를 기재하게 된다. 그러나 비도서와 같은 특수형태 자료에서는 ISBD에 의하면, 자료의 수량과 함께 자료의 형태를 표시하고 있다. 즉 낱개의 수효가 주어지는 저작물은 그 수효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고 다음에 자료의 종류 즉 형태를 기재하고 있다.<sup>20)</sup> 예를들면

3 maps

1 globe

1 score

2 sound cassette

4 film reels

1 transpareney

3 filmstrip

과 같다.

이와같이 자료의 종류를 표시해 주고 있는 바 古典籍에서 종류라 하

20) Gorman, 前掲書, p.33.

면 裝訂의 종류가 되는데 종래 이 부분은 卷冊數를 기재한 다음 ( )로 묶어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形態記述 맨끝에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다른 특수자료의 記述 형식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ISBD의 특수형태자료의 形態記述에 준하여

蝴蝶裝 24張

卷子本 1軸

帖裝 1帖

등으로 형태의 종류를 기록하고 수량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sup>21)</sup>

## 2. 형태의 수량

### a. 張 또는 面數

일반도서관의 단행본일 경우는 page수를 표기하게 되는데 古典籍에 있어서는 線裝本의 경우 不分卷으로 된 1冊을 말하며 양면인쇄(重葉)된 것은 張數로 단면인쇄(單葉)로 된 것은 각기 마지막 面數를 기재하고, 수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되 面數를 「쪽」이라 표기해도 좋겠다.

線裝 24張 (重葉本일 경우)

線裝 206面 또는 「쪽」 또는 p. (單葉本일 경우)

線裝本 이외의 單卷이나 不分卷으로 된 卷子本은 1軸이라 기재하고 接合된 各 부분을 1張으로 계산하여 ( )로 묶어 기록한다.<sup>22)</sup>

卷子本 1軸

卷子本 1軸(30張)

單卷이나 不分卷으로 된 1帖의 帖裝 또는 旋風葉은 1帖이라 기재하고 이 역시 折數를 ( )로 묶어 기재한다.<sup>23)</sup>

帖裝 1帖(20折)

旋風葉 1帖(79折, 20張)

單卷이나 不分卷으로 된 1冊의 蝴蝶裝은 反摺된 印刷 또는 書寫 部分

21) 日本圖書館協會「日本目錄規則：1987年版」(東京：日本圖書館協會, 1987) p.105.

22) 千惠鳳, 前掲書 p.147.

23) 白 麟, 「古書目錄規則」(서울：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966) p.39.

만을 面 또는 張으로 計算하여 기재한다. 張으로 表示하는 경우는 反摺된 印刷 또는 書寫部分의 兩面을 1張으로 計算한다.<sup>24)</sup>

b. 卷·冊數 및 函數

古典籍에서 2卷1冊 이상은 卷冊數를 표시하고 不分卷 2冊 이상은 冊數만 기재토록 한다. 앞의 형태의 종류와 연이어 예를 들면

線裝 2卷 1冊

線裝 2冊

이상과 같이 기재된다.

卷冊數에는 書誌的 冊數와 物理的 冊數가 있는데 書誌的 冊數란 1冊 내의 卷 또는 篇數를 말한다. 즉 古典籍이 한 冊으로 되어 있어도 그 안에 3卷(3篇)이 들어있다면 書誌的 冊數를 셋이되는 것이다. 物理的 冊數라 함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冊數로서 圖書가 1卷(篇) 1冊으로 되어 있든, 數卷(篇) 1冊으로 되어 있든, 또 다른 책과 合綴 또는 合刻 되어 있든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冊의 形態로서 되어 있으면 물리적으로 1冊이 되는 것이다.<sup>25)</sup> 그러므로 同時에 印出된 同一版의 冊일지라도 書誌的 冊數로서의 卷(篇)數는 一定하지만, 物理的 冊數는 반드시 일정치 않은 것이 양자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古典籍의 形態記述에서는 양자를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책 數는 裝訂의 種類에 따라 單位 呼稱을 기재하는데, 卷子本과 簇子·橫軸·長軸과 같은 卷軸 및 疊物과 같은 摺鋪類등은 軸으로 표시한다. 摺冊, 折本, 梵夾裝과 같은 帖裝 및 旋風葉은 帖으로 표시하며, 粘葉, 裏背裝과 같은 蝴蝶裝과 包背裝, 旋裝本 및 洋裝의 古書 등은 冊으로 기재한다.<sup>26)</sup> 또한 卷軸으로 되어 있지 않은 橫幅 또는 長幅의 書畫類는 「幅」으로, 날장류는 「張」 또는 「枚」의 單位 호칭으로 기재한다.

24) 千惠鳳, 上揭書, 同面.

25) 上揭書. p.148-149.

26) 上揭書. p.150

|           |              |
|-----------|--------------|
| 2幅        | (書畫類)        |
| 130張 또는 枚 | (날장류)        |
| 21鋪       | (地圖의 摺鋪類)    |
| 1軸        | (簇子類)        |
| 10卷10軸    | (卷者本)        |
| 10卷10帖    | (帖裝·旋風葉)     |
| 10卷 5册    | (線裝·包背裝·蝴蝶裝) |
| 10卷 1册    | (洋裝의 古書)     |

책이 函 또는 木匣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책수 다음이 函 또는 木匣수를 기재토록 한다.

線裝 10卷4册1函

線裝 7卷7册1木匣

한 帙의 날장류가 상자 또는 봉투에 들어 있는 경우도 總張 또는 枚數다음에 상자 또는 봉투수를 기재한다.

130張 또는 枚 1函

40張 또는 枚 2封套

## B. 기타 形態의 細目

이 부분은 단행본에서 삽도류가 기재되는데 특수한 형태의 자료에서는 그 세세한 요소들이 모두 이 群에 기재된다. 이를테면

影像記錄資料의 경우(videorecordings)

3 videodiscs (119 min) : sd., b & w, 1600 rpm

음반일 경우<sup>27)</sup>

1 sound disc(32 min.) : 33 1/3rpm, stereo.

27) Eric Hunter, J. & Nicholas Fox, J. [Examples Illustrating AACR2 :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Second Edition] (London : Library Association, 1980) p.53.

필름스트립 경우<sup>28)</sup>

3 filmstrips : col., sd.

입체자료(three-dimensional objects) 경우<sup>29)</sup>

6 tablets : plastic, brown

1 mock-up : plastic

2 praperweight : glass

1 game : wood & plastic

sculpture : mable

등과 같이 각 자료의 형태적인 세부 특징 이를테면 音響記錄資料(sound recordings)에서는 音의 記錄方式, 再生速度, 음향의 채널 등, 影像記錄 및 그래픽자료(video recordings and two dimensional graphic items)에서는 有聲·無聲·採色등, 立體資料에서는 자료를 형성하고 있는 材料들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古典籍의 형태적 諸 特徵들인 挿圖, 匡郭, 界線, 行字數, 黑口, 魚尾 등도 이에서 기재되어야 할 것인 바 순서적으로 각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1. 挿圖類

挿圖類에는 挿畫, 地圖, 肖像, 表, 墓山圖등 本文의 내용을 참조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써 앞서 언급한 張·卷冊數 다음에 (:)을 앞세워 기재한다.

線裝 20張 : 挿圖

이때 채색이 된 경우는 그의 표시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採色」이나 기재한다.

線裝 2卷1冊 : 採色挿圖

28) Maxwell, 前掲書, p.37.

29) 上掲書, p.204, 205.

## 2. 匡郭의 種類

匡郭은 요즈음 刊行되는 일반 도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版의 四周를 둘러싼 線으로서 板匡, 또는 邊欄이라고도 하는데<sup>30)</sup> 그의 양식에 따라 古典籍의 異版을 가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를 앞세워 기재 하는데 匡郭이 四周에 걸쳐 單線으로 된 것은 四周單邊, 複線으로 된 것은 四周雙邊, 四周 중 上下의 것이 單線이고 左右의 것이 複線인 것은 左右雙邊이라 표시 한다.

線裝 22, 2張 : 挿畫, 左右雙邊

線裝 30張 : 挿圖, 四周單邊

線裝 9卷3冊 : 肖像, 四周雙邊

이외에도 卷子本, 帖裝 또는 旋風葉등은 各張의 連接 部分의 邊欄을 도려내고 接合시켜 左右의 邊欄이 보이지 않으므로 卷首의 첫 右邊欄이 아니면 卷末의 마지막 左邊欄을 토대로 하여 기재한다.

匡郭의 크기는 종래 匡郭의 종류 바로 다음에 記述하였으나, 이는 책의 외형적인 크기 보다도 異版本을 식별하는데 더 중요하므로 크기부분에 함께 모아, 後述하게 되는 항목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 3. 界(罫)線, 絲欄

界線 또는 罫線은 刊本에서 인쇄된 면의 行間을 구분하기 위해 그은 線<sup>31)</sup>을 말한다. 界線이 있는 것은 匡郭의 종류 다음에(,)을 앞세우고 「有界」로, 없는 것은 「無界」로 기재하나 때에 따라서 無界는 생략할 수도 있겠다.

또 寫本에서는 이 線을 絲欄이라고 하는데 이때 墨色인 것은 烏絲欄, 朱色인것은 朱絲欄, 藍色인 것은 藍絲欄으로 기재한다.

30) 千惠鳳, 前掲書. p.152.

31) 上掲書. p.153.

左右雙邊, 有界

四周單邊, 朱絲欄

이상과 같은 界線의 有無表示도 異版本을 識別하는데 도움이 되는 바, 동일한 著作이라도 高麗本과 같은 古版本은 대체로 無界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古版本을 覆刻한 경우는 重刊 또는 後刻本에도 無界가 있으므로 이때는 다른 사항들을 종합한 토대위에서 異版本을 識別해야 할 것이다.

#### 4. 行字數

行字數도 역시 異版 식별에 절대적인 요소로서 반드시 대조해야만 할 사항이며 (,)를 앞세워 기록한다.

版心이 없는 경우는 本文이 있는 한 張 즉 全葉(양면)의 行列數와 每行의 字數를 기록하고, 版心이 있는 경우는 本文 한 張의 반 페이지인 즉 半葉의 行列數와 每行의 字數를 기재하되 이 경우는 「半葉」이라 표시하고 行字數를 기록해야 한다.

글자 또는 活字의 大中小에 따라 行列과 字數가 다른 경우는 각각 연이어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小子인 註가 字數는 일치하고 다만 行列만이 雙行인 경우는 「註雙行」이라 附記한다.

每行의 字數가 一定하지 않은 경우는 최소의 字數와 최대의 字數를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卷子本 1軸 : 四周單邊, 25行24字, 註雙行

帖裝 1帖 : 四周雙邊, 25行20字, 註雙行

線裝 40卷20冊 : 左右雙邊, 大字5行10字, 中字10行20字, 註雙行

#### 32) 孟子諺解 直祖命編 本版

○14卷 7冊 四周雙邊, 半郭 20.3×17cm  
10行19字 內向2葉花紋魚尾 35.9×22.9cm

○14卷 7冊 四周單邊, 半郭 20.5×15cm  
12行22字, 註雙行, 上 2葉花紋魚尾 31×20cm

위의 孟子諺解의 경우 같은 木版本으로써 卷冊數만 같고 行字數 이외의 모든 형태가 같지 않다. 古典籍에서는 이와같은 경우가 허다하다.

線裝 20卷10冊：四周雙邊，半葉 9行，19-20字，註雙行 18字  
또한 古典籍에서는 같은 책에도 간행한 時期에 따라 行字數가 다른 경우가 있어<sup>32)</sup> 異版 識別에 중요하므로 자세히 기재해줄 필요가 있다.

### 5) 黑 口

黑口는 版心<sup>33)</sup>의 上下象鼻 中心에 黑線을 가르키는 것인데, 이것이 있다면 字數 표시 다음에 (,)을 앞세우고 「黑口」라 기재한다.

이때 黑線이 굵은 것은 「大黑口」, 가는 것은 「小黑口」 또는 「細黑口」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黑線이 없는 것은 「白口」 또는 黑線 대신 그 中心에 文字가 새겨진 것은 「花口」라 표시하기도 하나 이들은 형태기술의 복잡을 덜기 위해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黑口는 서양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版의 시대 구분에 중요한 근거가 되며 壬辰亂 이후에는 覆刻 또는 模印本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黑口도 同一著作의 異版本 식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線裝 12卷8冊：挿圖，左口雙邊，半葉 8行23字，註雙行，大黑口

線裝 10卷3冊：挿圖，左右雙邊，半葉10行20字，小黑口

線裝 13卷6冊：四周雙邊，半葉10行20字，大黑口

線裝 5卷6冊：四周雙邊，半葉 大字 5行8字，中字 10行16字，註雙行，大黑口

### 6. 魚 尾

魚尾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것과 더불어 한쌍이 되어 刊本의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異版本의 식별에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술 형식은 版心에 있는 魚尾가 黑色이면 「黑魚尾」, 白色이면 「白魚

33) 于震賓. “善本圖書編目法” 「圖書館學季刊」 7卷4期 pp.587-588에서는 版口라고도 하였음.



尾], 꽃잎의 무늬로 있는 것은 「花紋魚尾」, 상단에 하나 있으면 「上黑(白 또는 花紋)魚尾」, 하단에만 하나 있으면 「下黑(白 또는 花紋)魚尾」, 上下의 魚尾가 서로 內向하고 있으면 「上下內向黑(花紋)魚尾」, 上下의 魚尾가 다같이 內向하고 있는 경우 「上下下向黑(花紋)魚尾」라 기재한다. 그러나 그 中 上下內向黑(花紋)魚尾와 上下下向黑(花紋)魚尾는 記入이 간략화를 위하여 上下를 생략하고 그냥 「內向黑(花紋)魚尾」「下向黑(花紋)魚尾」와 같이 기재할 수도 있겠다.

花紋魚尾는 同一著作의 異版本을 刊行된 時代順으로 대강 識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즉 花紋魚尾는 中宗朝 무렵부터 三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壬亂前에는 예외없이 사용되다가 壬亂 이후는 光·仁祖朝까지도 계속되고, 그 이후는 二葉이 混用되다고 英祖以後 完全하게 二葉으로 바뀌는 등, 魚尾만으로도 어느 정도 刊印年의 시대적 변천을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

線裝 2卷2冊 : 四周雙邊, 半葉10行21字, 內向黑魚尾

線裝 4卷1冊 : 挿圖, 四周單邊, 半葉10行 21字, 上黑魚尾

線裝 4卷2冊 : 左右雙邊, 半葉大字5行12字, 中字10行18字, 註雙行, 內向三葉花紋魚尾

### C. 크 기

크기는 빈칸 ; 빈칸 즉 (;)를 앞세워 첫수를 기재하고는 (·)로 끝맺음을 한다. 이에는 책의 외형적인 크기와 匡郭의 크기 2종류가 있다. 古典籍에 있어서 책의 외형적인 크기 즉 표지의 크기는 같은 판에서 동시에 印出되는 冊 중에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匡郭의 크기는 한번 정해지면 不變이므로 匡郭의 크기가 다르면 틀림없이 異版本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古典籍의 異版本을 대조하는 데는 책의 외형적인 크기보다 匡郭의 크기가 더 중요한 만큼 크기에 있어서 두가지를 다 기입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종래는 匡郭의 크기를 앞서 언급한 匡郭의 種類 바로 다음에 기재하였으나, ISBD의 형식에 준하여 크기끼리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크기상에 두 종류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 ISBD에 의한 특수 형태자료에서 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34)</sup>

: 41×46 cm, folded to 23×11 cm. (지도일 경우)

: 92×65 cm, folded to 23×10 cm. (지도일 경우)

위의 예를 보면 외형적인 크기 다음에 접혀진 지도의 크기를 기재하였는바, 古典籍에서도 먼저 책의 외형적인 크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 匡郭의 크기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 책 표지의 크기. 匡郭의 크기.

그러면 먼저 책의 외형적인 크기부터 설명하기로 한다.

#### 1. 책의 외형적인 크기

책의 크기는 보통 古典籍에서 魚尾 다음에 기재하게 되나 卷子本, 帖裝, 旋風葉과 같이 版心이 없는 경우는 行字數 다음에 기재하게 될 것이다. 크기는 책의 세로길이 × 가로길이 cm로 표기하되 소수점 이하 첫 자리까지 기재한다.

帖裝 또는 旋風葉은 접힌 冊紙의 세로와 가로의 길이를 기재하며, 卷軸類 摺鋪類 낱장류는 필요에 따라 세로와 가로의 길이를 기재한다. 특히 摺鋪와 낱장류로서 w모양 또는 二重이상으로 접힌 것은 필요에 따라 全紙와 접힌 紙面의 세로와 가로를 표시한다.

: 30.6×18.9 cm.

: 32.3×21 cm.

: 90×50 cm. (卷軸類의 예)

: 26×160 cm, 절첩 26×16 cm. (1個의 摺鋪의 예)

: 44×84 cm, 절첩 22×14 cm. (낱장류의 예)

이외에 1部2冊 이상의 도서로서 크기가 2cm 이하의 차이가 있는 것

34) Maxwell, 前掲書, pp.127-130.

은 최대의 크기만 표시하고, 2cm 이상의 것은 필요에 따라 최소와 최대의 길이를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기재토록 한다. 그러나 불과 몇冊만이 크기가 다르고 同一한 크기의 圖書가 대부분인 것은 많은 쪽의 크기를 택하고, 적은 쪽의 크기는 괄호로 묶어 附記한다.

; 29-33 cm. (2cm이상 차이가 있는 線裝本의 경우)

; 27 cm. (第 1-2冊, 24cm) (1·2冊만 크기가 작은 線裝本의 경우)

## 2. 匡郭의 크기

匡郭의 크기는 冊紙 한 張의 全葉 또는 半葉의 四周邊欄의 세로길이 × 가로길이 cm로 (,)를 앞세워 기재하고 (.)로 끝맺음을 한다.

版心이 없는 冊紙는 한張 全葉(양면)의 四周邊欄의 縱橫 길이를 기재하고, 版心이 있는 경우는 半葉(한면)의 四周邊欄의 縱橫의 길이를 半葉 匡郭의 略語인 「半郭」을 앞세워 기재한다. 이때 四周의 길이 측정은 本文이 있는 첫 張의 四周邊欄의 한 內側에서 마주 보는 內側까지를 각각 기준으로 한다.

卷子本 帖裝 또는 旋風葉은 接合된 各部分이 한 張이므로 가로는 卷首 첫張의 右邊欄에서 다음 張과의 接合部까지의 길이를 기재한다.

; 39×26.5 cm, 半郭 25.2×19.8 cm. (版心이 있는 半葉의 匡郭)

; 29×18.5 cm, 22.2×28.2 cm. (版心이 없는 全葉의 匡郭)

이상 古典籍의 형태적 특징의 세부사항들에 대해 기재 방법을 제시하였는 바, 그 예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 挿圖, 四周單邊, 有界, 半葉 10行24字, 註雙行, 小黑口, 上下三葉花紋魚尾 ; 33.5×22 cm. 半郭 26×17 cm.

## D. 딸린 자료

딸린 자료는 그 출판물과 동시에 간행된 것(또는 출간되도록 계획된

것)으로서 그 출판물과 함께 사용하도록 마련된 부속자료이며 그 출판물과 물리적인 연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sup>35)</sup> 즉 해설서, 정오표, 부록, 지도첩, 설명서, 안내서 등으로써 (+)로 앞세워 기재토록 한다.

十正誤1冊. (會補文獻備考)

十愆菴雜叢. (普雨著 虛應堂集)

이상의 형태기술 형식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裝訂의 종류 수량 : 插圖, 匡郭의 종류, 界線, 行字數, 黑口, 魚尾 ;  
책의 표지의 크기. 匡郭의 크기. + 딸린 자료.

線裝 2卷1冊 : 插圖, 四周雙邊, 有界10行20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6.7×17.7 cm, 半郭 20.4×13.3 cm, + 正誤1冊.

## V. 結 言

古典籍의 形態記述에 대하여 연구한 바, 모든 資料는 각기 다양한 특성들을 갖고 있으며 이들 개개의 특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각기 그에 알맞는 形態記述이 필요한 것이다.

古典籍은 古印刷 方式에 의한 刊本이나 그와 같은 형태의 寫本이 대부분인데, 形態적으로 裝訂 내지는 版의 형식이 모두 요즈음의 일반도서와는 전혀 다른점에서 특수한 형태의 자료라 할 수 있겠다.

특히 古典籍들은 刊印年이 확실하지 않고 版種도 다양하여 異板 識別이 문제가 되므로 刊印年과 異板의 推定을 위하여는 더우기 이에 알맞는 古典籍 특유의 형태를 세부적으로 記述할 수 있는 形式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서관의 전산화 시스템이 적용되는 현시점에서 古典籍 資料 역시 자동화 목록이 실현되어야 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하나의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古典籍의 특수성에 타당한 형태기술을 제

35) 국제도서관협회연맹제정, 리재철·현규섭 역주, 「국제표준서지기술법(단행본용)」(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76) p.37.

시하기 위하여 기타 비도서 즉 특수형태 資料의 ISBD에 의한 形態記述 上의 특징들을 다각적으로 비교하여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형태 기술의 형식을 최소한의 요소로서 순서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특수형태 자료의 종류와 수량으로서 처음 특수한 형태의 종류, 古典籍에서 즉 裝訂의 종류를 들도록하고 그 다음 각 裝訂에 맞는 단위 표시로서 수량을 기재토록 하였다.

둘째는 기타의 형태적 세목으로 이에 古典籍의 특이한 형태, 즉 挿圖類, 匡郭의 種類, 界線, 行字數, 黑口, 魚尾 등을 순서적으로 열거하여 형식을 갖추어 記述하도록 하였다.

세째는 크기로서 종래 방식과 달리 책에 관계되는 크기를 한데 모아 특수 형태자료의 크기에 관한 기재방법을 연구하여 책의 외형적인 즉 표지의 크기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匡郭의 크기를 기재토록 하였다.

네째는 딸린자료 즉 첨부자료를 말하는데 이에서도 ISBD의 형식에 준하여 실례를 들어 기재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古典籍의 形態記述을 ISBD에 준하여 기본적인 記述 형식만을 제시하였는 바, 古典籍 자료 목록의 전산화를 위하여 작은 준비 작업이 되었기를 바라며 보다 상세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미비한 점들에 대한 많은 叱正을 바란다.

### 參考文獻

1.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서울:국립중앙도서관, 1972.
2.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 편,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 (단행본용):예비노트 보완판」 서울:국립중앙도서관, 1985.
3.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제정, 리재철·현규섭 역주, 「국제표준서지기술법 (단행본용)」 서울:한국도서관협회, 1976.
4. 국회도서관 사서국 참고서지과 편,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국회

- 도서관, 1968.
5. 金恩惠, “東洋古書目錄의 電算化를 위한 標準化 研究,”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6. 金致雨. 「古書編目規則」 서울:景仁文化社, 1975.  
“古書의 傳統的 整理方法에 관한 問題와 對策,” 「부산여대 논문집」, 14 ('83. 1) 463-481面.
  7. 白 麟. 「古書目錄規則」 서울: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966.
  8. 成均館大學校. 「古書目錄」 서울: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9.
  9. 吳東根. “KORMARC · CHINESE MARC · JAPAN MARC의 format에 관한 比較 및 分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6.
  10.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編. 「日本目錄規則:1987年版」東京:日本圖書館協會, 1987.
  11. 任鍾淳. “黑口論,” 「書誌學」, 3호(1970). 23-38面.
  12. 鄭駘謨. 「目錄組織論」 서울:구미무역, 1988.
  13.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下 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70.
  14.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3版 : 記述 · 目錄올림指示篇」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83
  15.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개정기술위원회 제정.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단행본용) : 표준포맷」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84.
  1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한국학자료의 전산화 연구」 성남 : 韓國精神研究院, 1982.
  17. 玄圭燮. 「自動化目錄法序說 : KOR MARC포맷을 중심으로」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6.
  18.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Revision, Chicago : ALA, 1984.
  19. Cook, C Donald. 「AACR2 Decisions and Rule Interpretations」. Ottawa : CLA, 1985.

20. Crawford, Walt. [MARC for Library Use, Second Edition : Understanding Integrated USMARC] 2nd ed. Boston : G. K. Hall, 1989.
21. Gorman, Michael. [The Concise AACR2]. Chicago : ALA, 1981.
22. Greenberg, Alan M. [LC and AACR 2 : Album of Cataloguing Examples]. Metuchen : Scarecrow Press, 1984.
23. Hunter, Eric J & Nicholas J. Fox. [Examples Illustrating AACR2 :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Second Edition]. London : Library Association, 1980.
24. IFLA. [ISBD (M)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 London :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4.
25. IFLA and Institutions. [ISBD(NBM)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Non-Book Materials]. London :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77.
26. Maxwell, Margaret F. [Handbook for AACR2 : Explaining and Illustrating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Second Edition]. Chicago : ALA, 1980.
27. Swanson, Edward. [A Manual of AACR2 Examples]. Minnesota : Soldier Creek Press, 1985.

## A Study on Physical Description of the Oriental Traditional Books : According to ISBD

Young Ah Hyun\*

### ABSTRACT

The external forms and contents of many library materials are very various. The physical description of the specific materials in the forms must be fitted to each forms.

The oriental traditional books are very special in the printing forms.

The machine readable cataloging of library materials is used internationally in these days. So, the cataloging of the oriental traditional materials must be reconsidered for computerizing of that. The physical descriptions of these materials will accord with ISBD to prepare for comuterzing of that.

This study presented the recording forms of physical description that fitted to peculiarity of the oriental traditional materials and it refered to ISBD of non-book materials that are special in the forms.

These recording forms of that are as the fallows;

The first part is the recording forms of description and number of the parts of items.

The second part is the recording forms of the other physical details.

---

\* Associate Prof.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yungji University.



This part contains the Illustration, Kwankwak, Keseon, Hengjasu, Heucku, Eormee.

The Third part is the dimensions of items. The dimensions of the oriental traditional books consist of two kind. One is the dimensions of actual printing. The other is that of a book cover.

The fourth part is the recording forms of the accompany materials.